

그림책 목록 2

김지은(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서울예대)

-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1970)
-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1972)
- 개구리와 두꺼비의 사계절(1976)
- 개구리와 두꺼비의 매일매일(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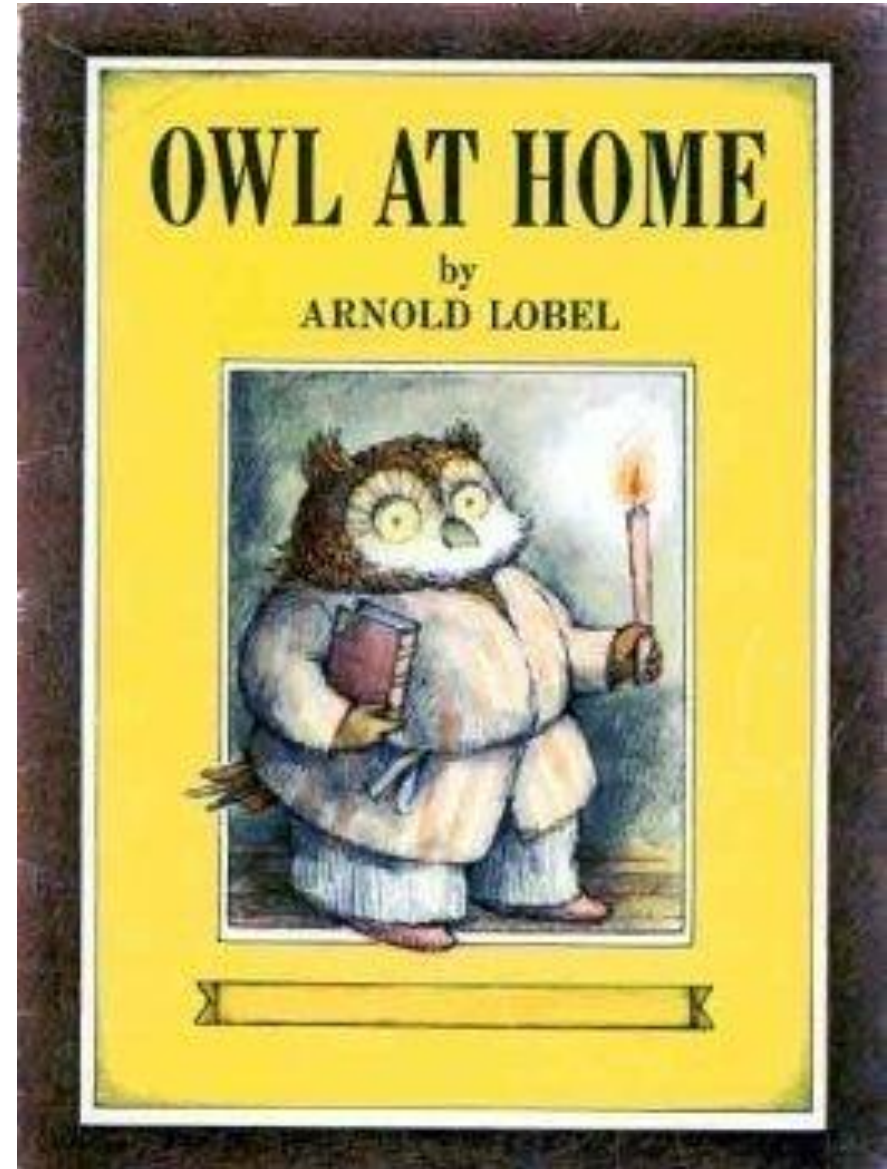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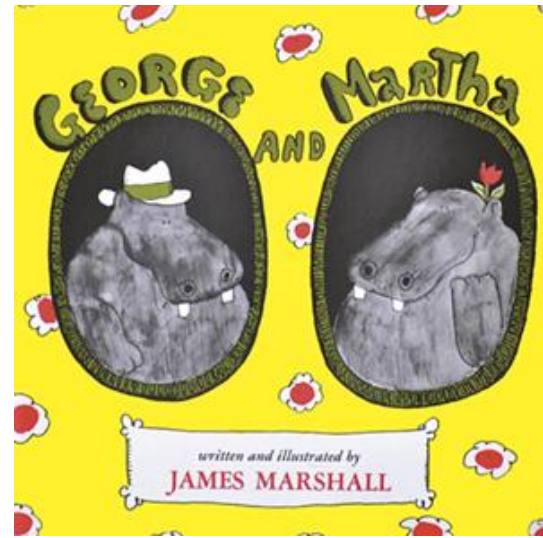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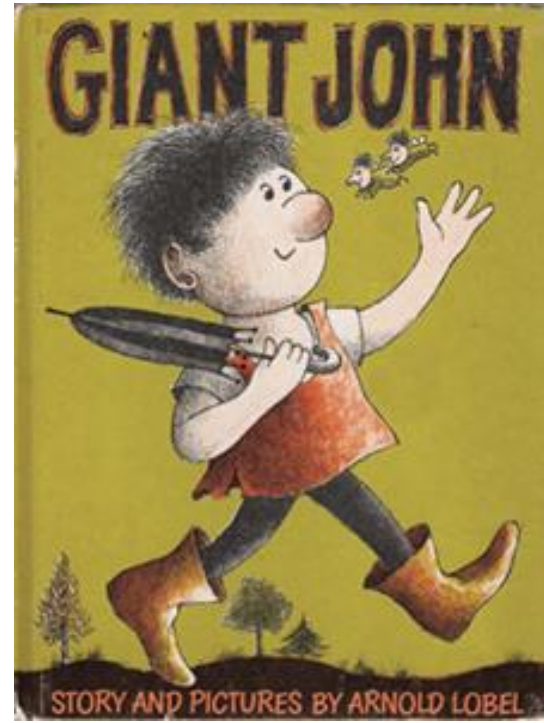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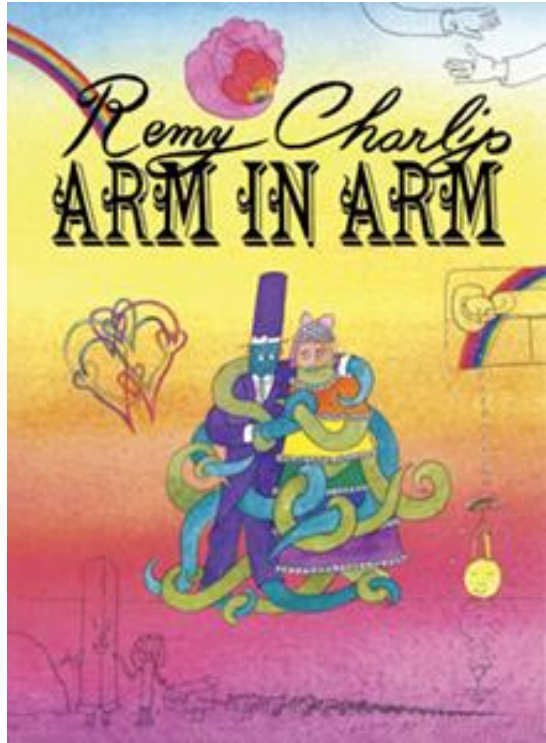
(1971년 칼데콧 명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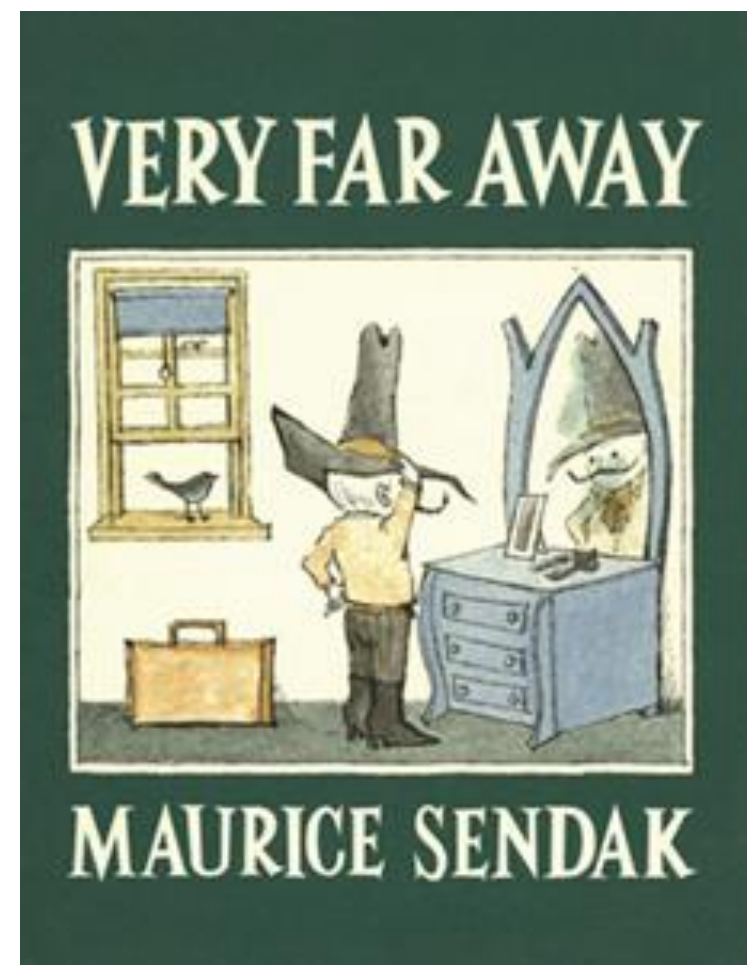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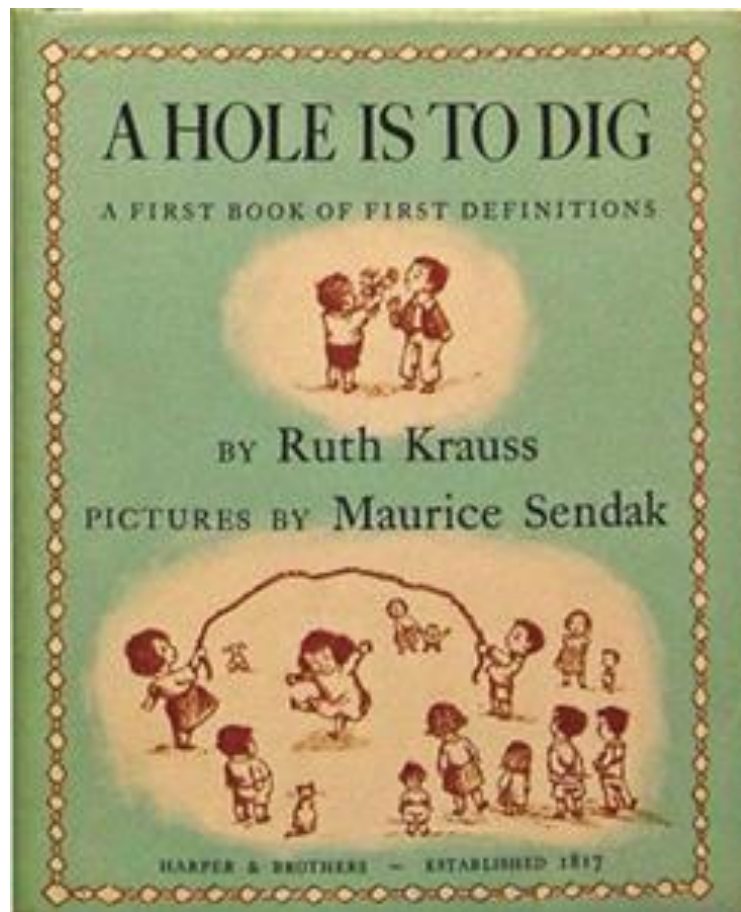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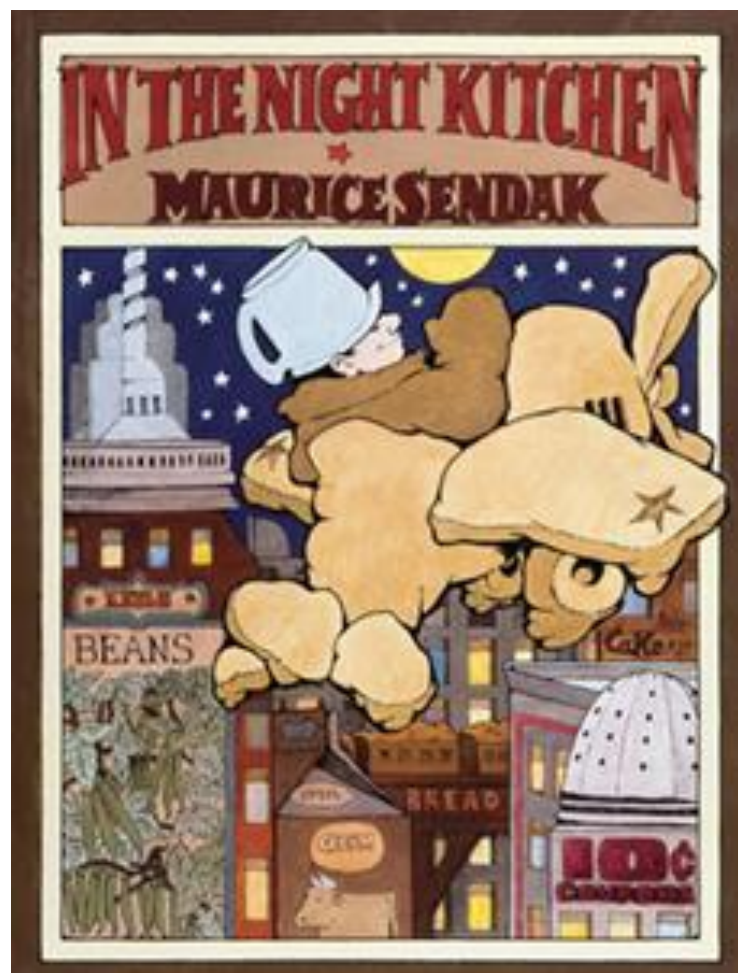
개구리와 두꺼비는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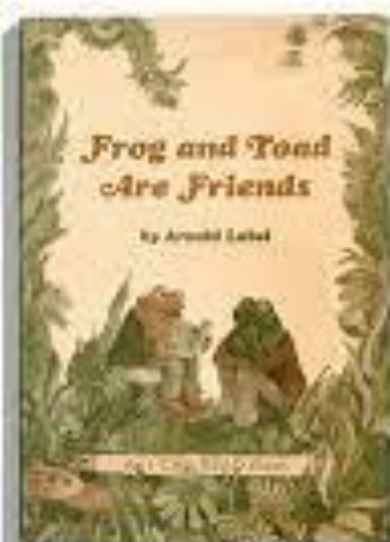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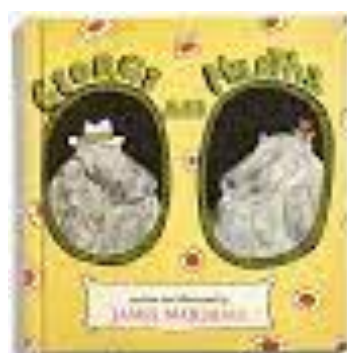
(1973년 뉴베리 명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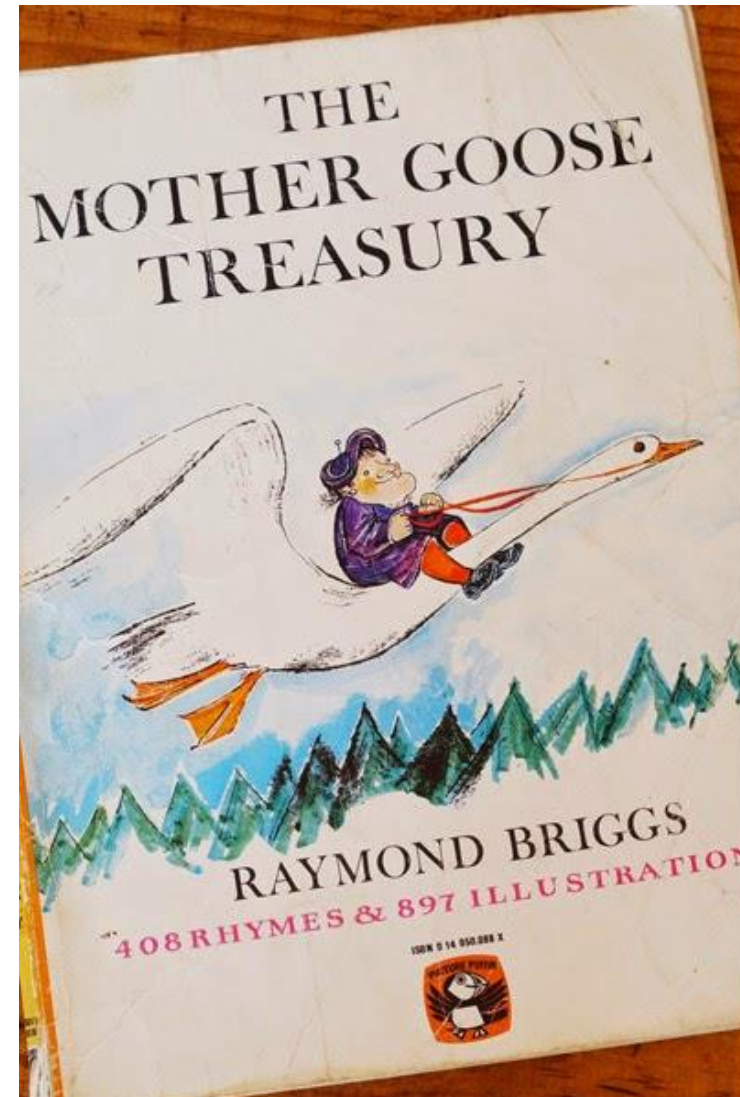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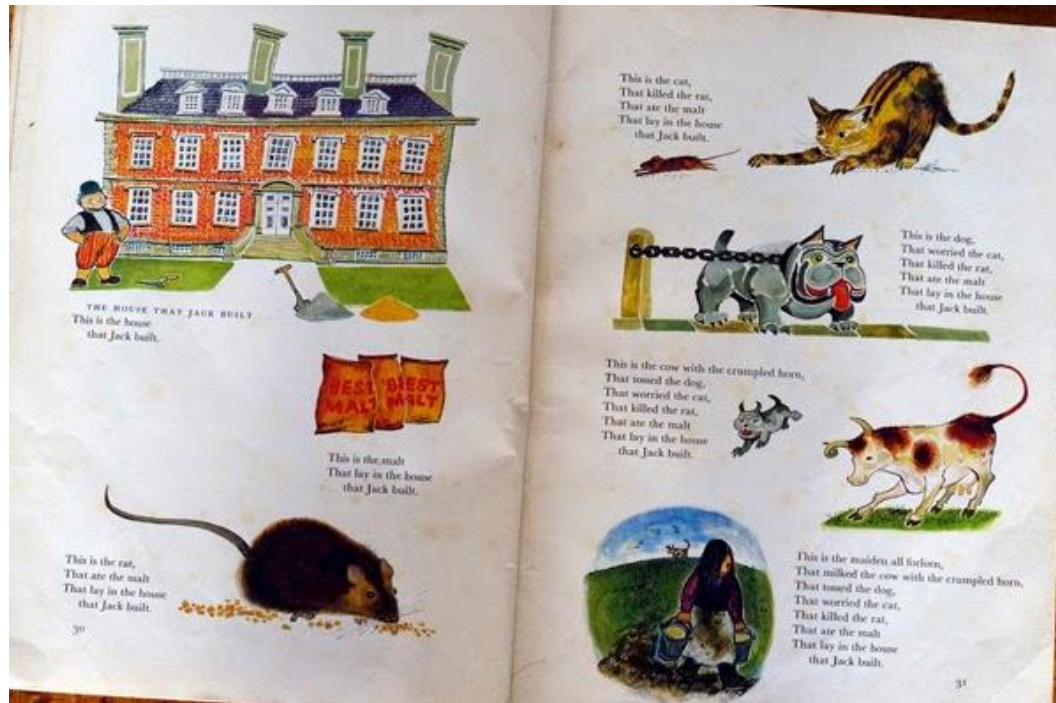




레이먼드 브릭스

<The Mother Goose Treasury>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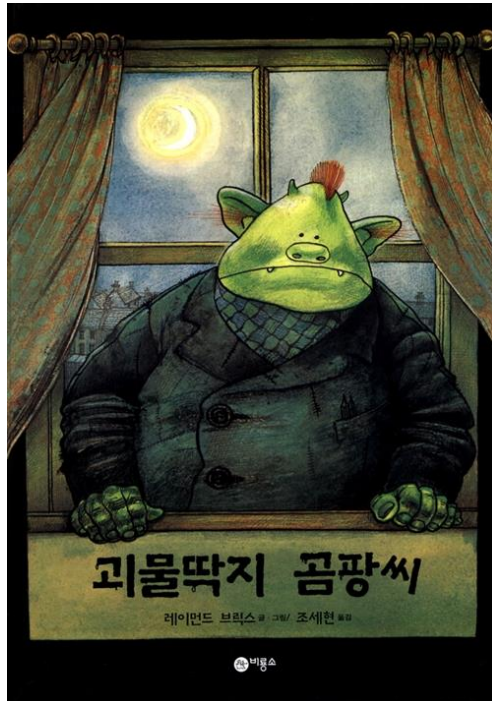
케이트 그리너웨이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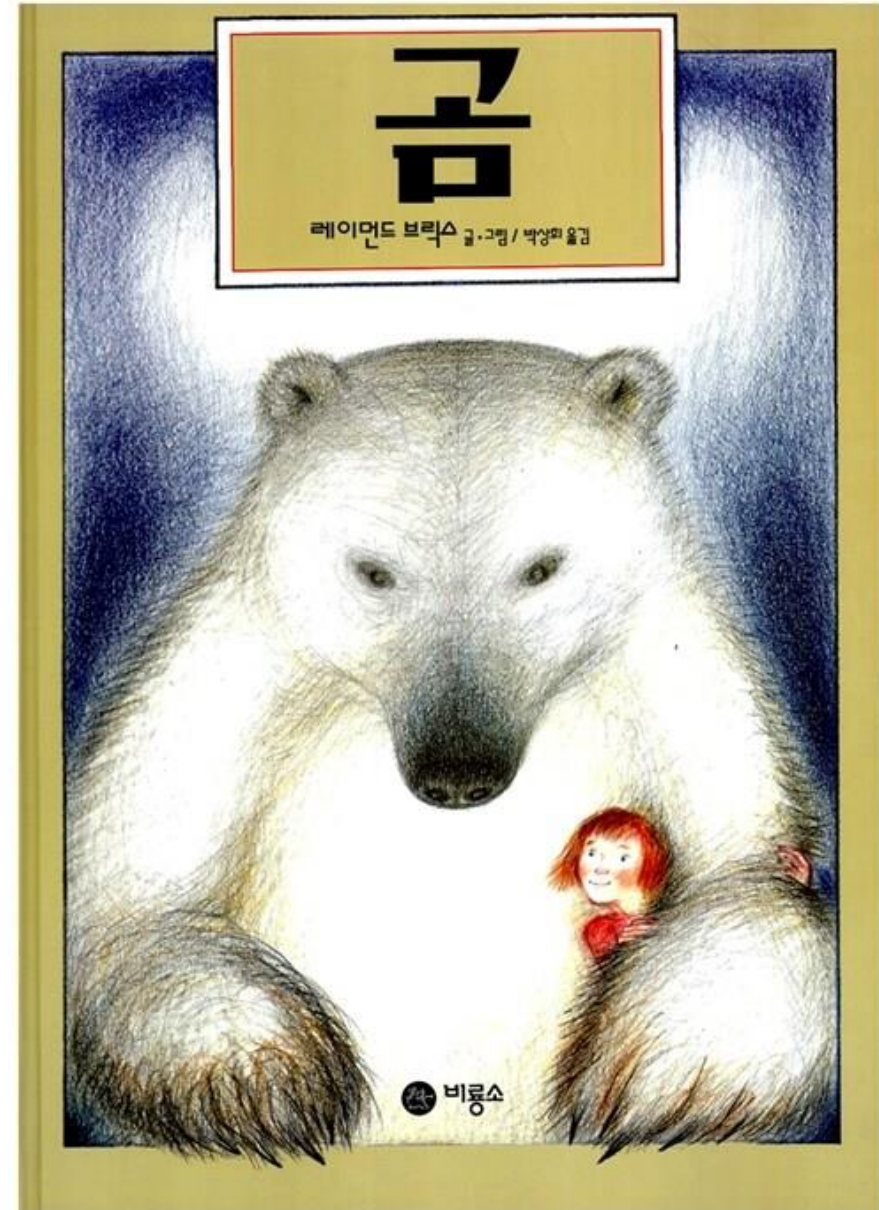
레이먼드 브릭스

<곰>(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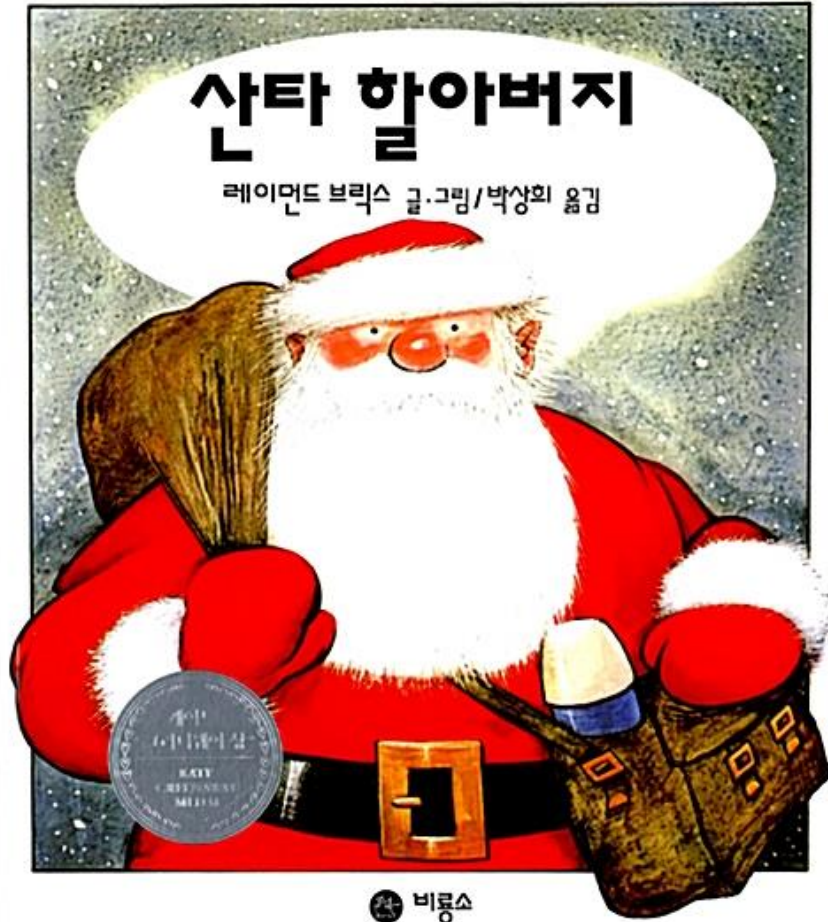
비룡소 그림동화 시리즈 1권



Fungus the Bogeyman (1977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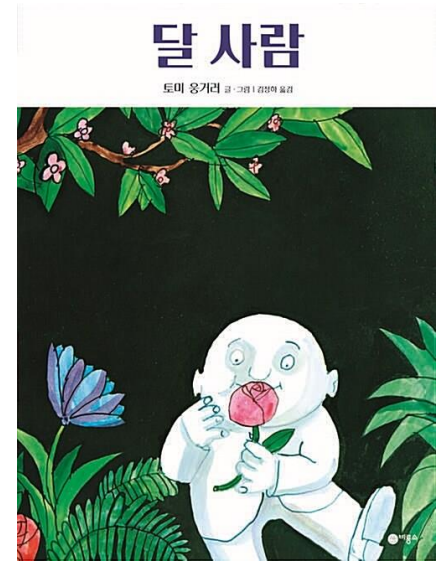
<산타 할아버지>[1973]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1975]



토미 움게러/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 **Tomi Ungerer**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늘 어린이를
존경했다.”

1998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2003년 에리히 케스트너 상,
1992년 독일 연방공화국 공로 훈장,
2000년 유럽연합의회 어린이-교육 대사
임명
2002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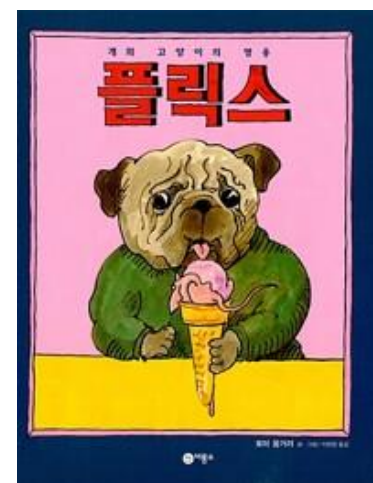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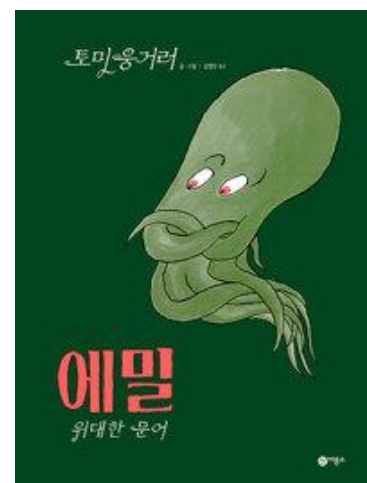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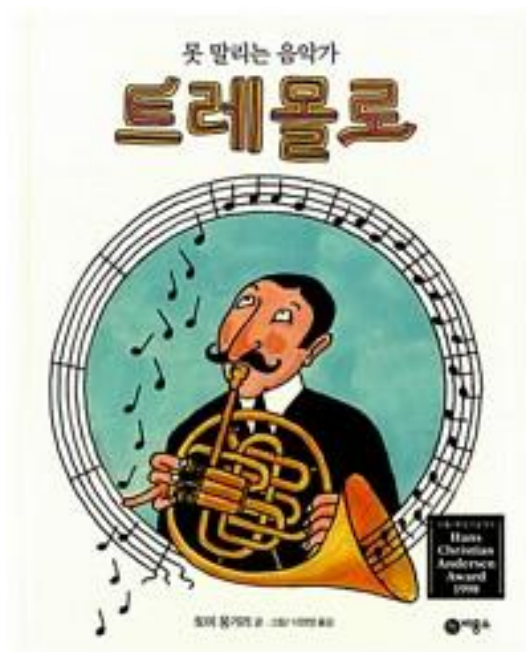


곰인형 **오토**

토미 움게러 글·그림/서현영 옮김

비룡소

위대한 존재는 누구인가? 영웅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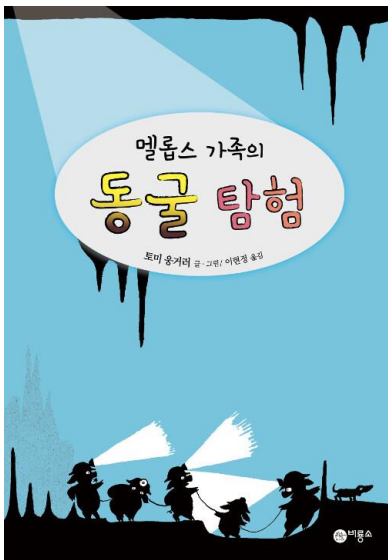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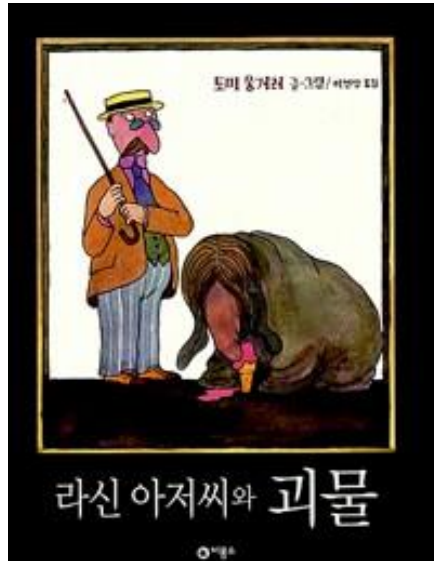
모험심이 많고 지혜로운 돼지 가족의 이야기 '멜롭스 시리즈'
어른들은 무서워하는 표지, '제랄다와 거인'

"저는 어린이가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겁을 주는 일을 별로 꺼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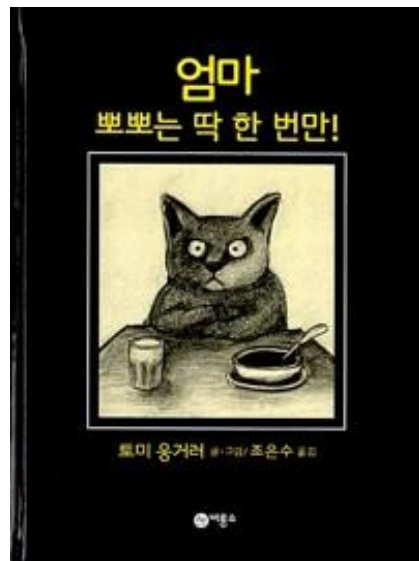
"내 동화책에는 대부분 공포의 요소가 있습니다. 내 책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결코 겁을 내지 않아요. 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른들이 많은 시간 동안 어린이에게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 책 속의 인물들은 항상 농담을 해요. 제가 어릴 때 무서운 상황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 무서워하는 것, 두려움과 불안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중인데 폭탄, 총알, 파편이 날아다니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섭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과 불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깊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당신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더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매우 가까이 있는 위협입니다. 저는 두려움보다 불안이 우리에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들이닥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자 프랑스어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봉쥬르라고 하면 바로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독일어를 배워야 했는데요.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3개월 안에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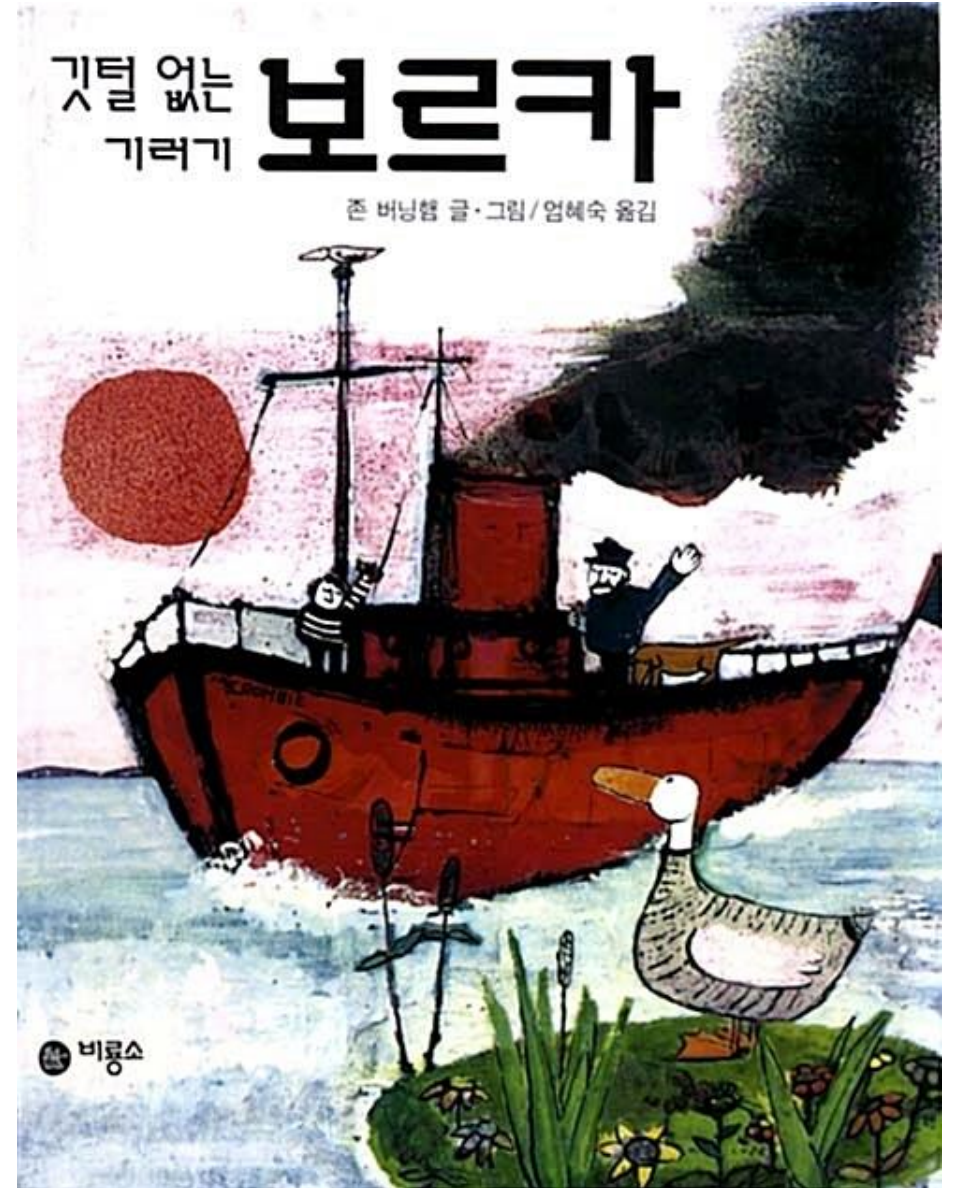
" '엄마, 뽀뽀하지 마세요!' 이 말은 토미 웅게러가 엄마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 그는 약간 흐릿한, 탁월한 연필 드로잉으로 고양이 가족의 집 안에 있는 쥐 다지기 기계 같은 무시무시한 물건들을 그려 두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고양이의 사나운 표정은 도전적인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졌고 이 책은 어른들의 걱정과 달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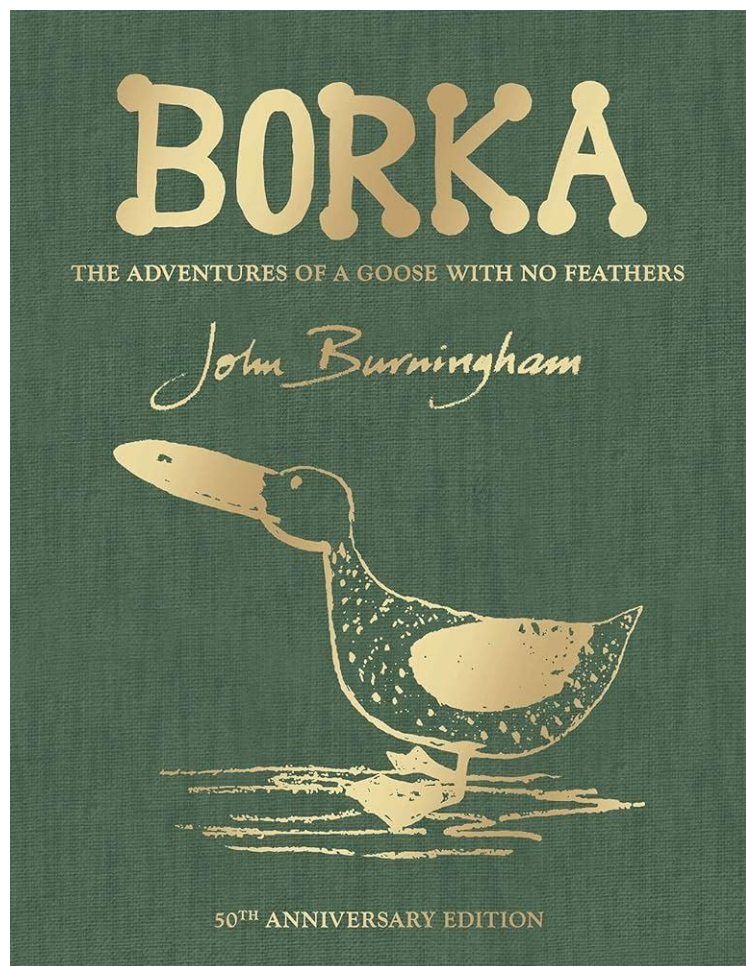
존 버닝햄

John Burningham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1963]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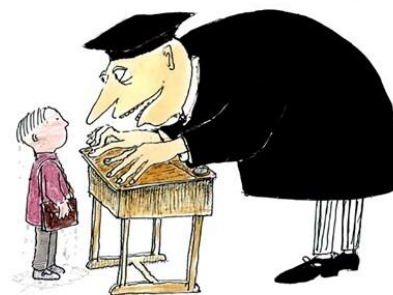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로 만들어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명령문에 대한 반문 또는 실험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글 · 그림 / 박상희 옮김



비룡소

에드워드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존 버닝햄 지음 / 조세현 옮김

비룡소

셜리야, 목욕은 이제 그만!

존 버닝햄 글 · 그림 / 최리을 옮김



비룡소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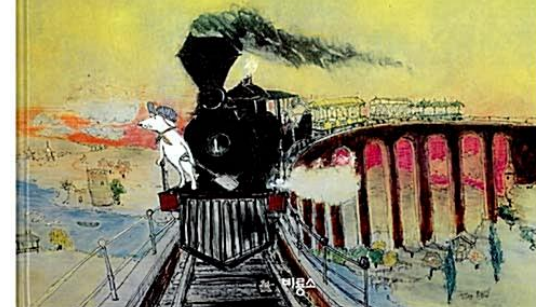
존 버닝햄 글 · 그림 / 이상희 옮김



비룡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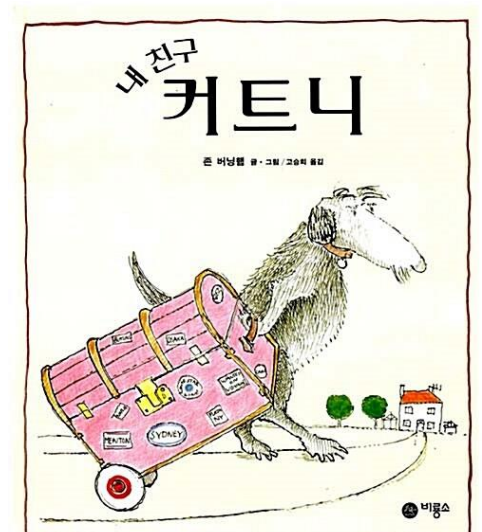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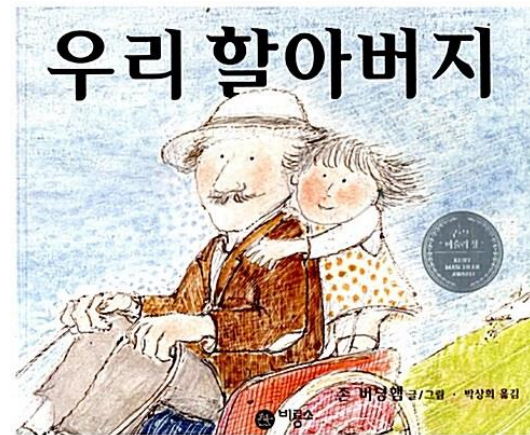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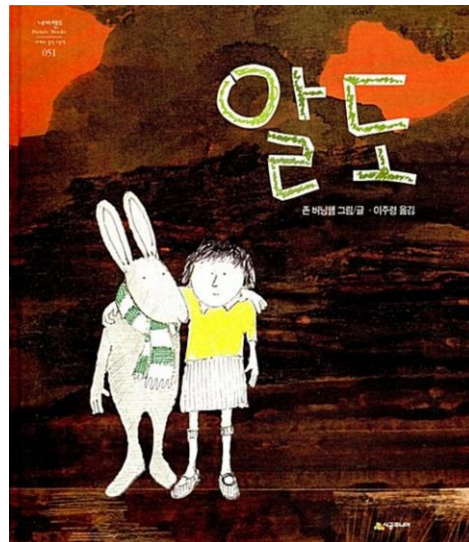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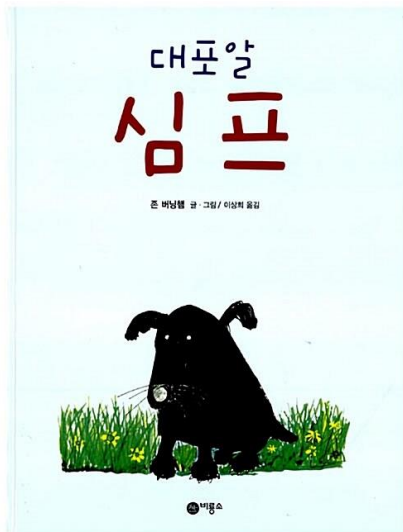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존 버닝햄 글 · 그림 / 박상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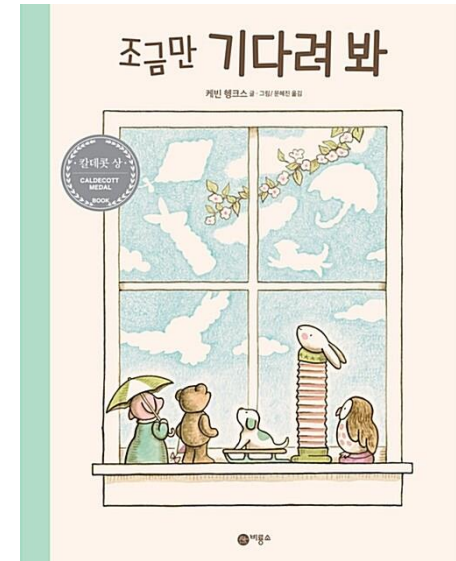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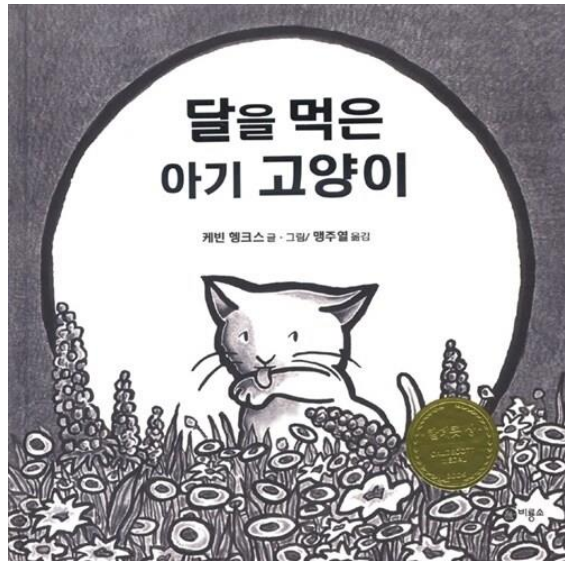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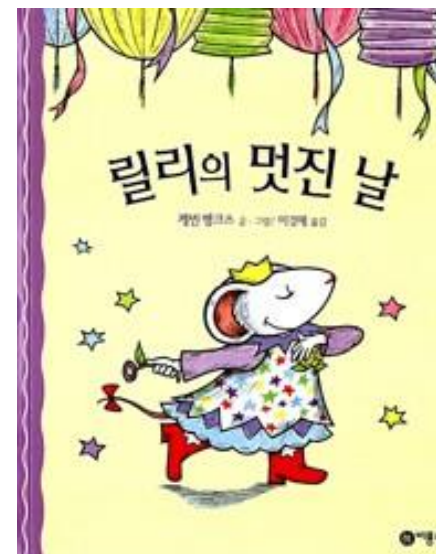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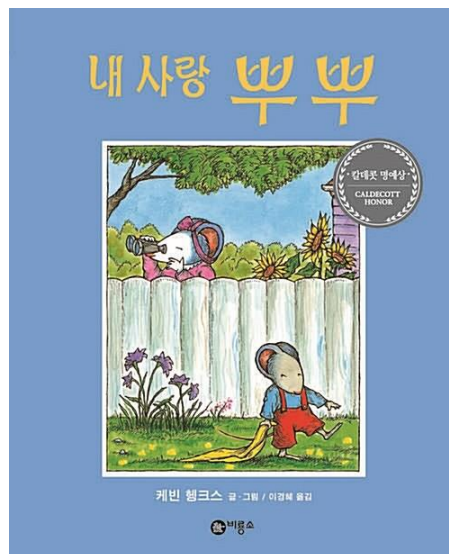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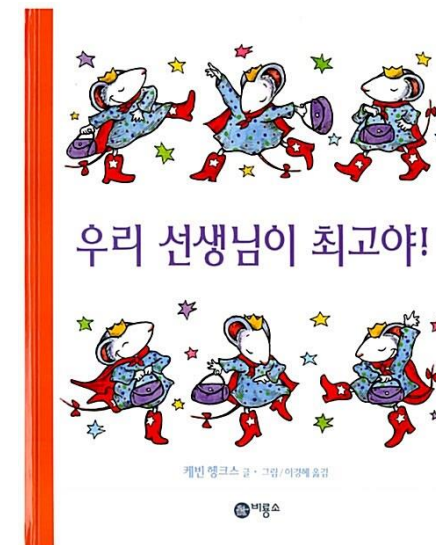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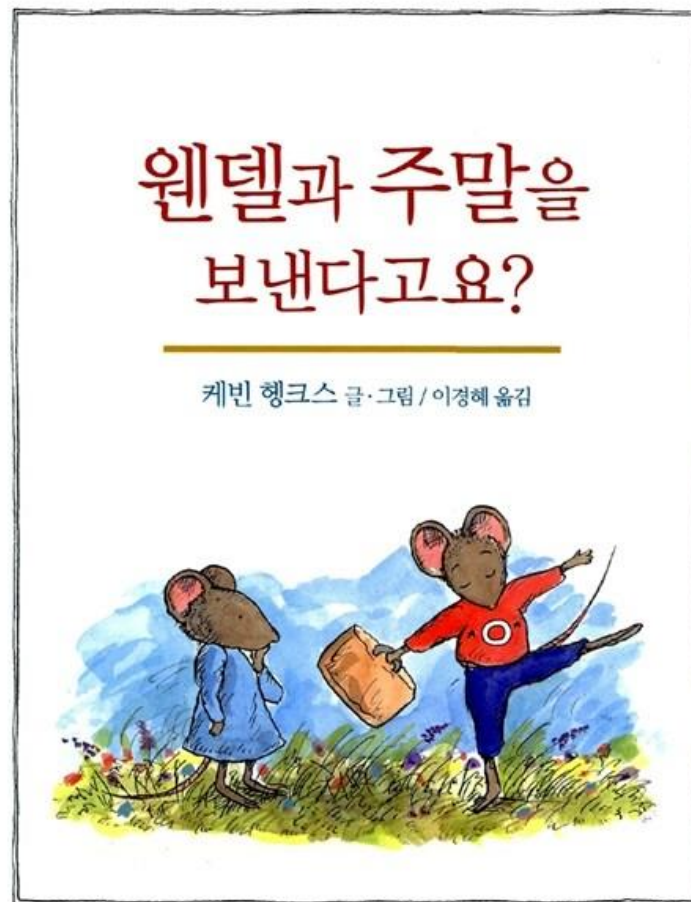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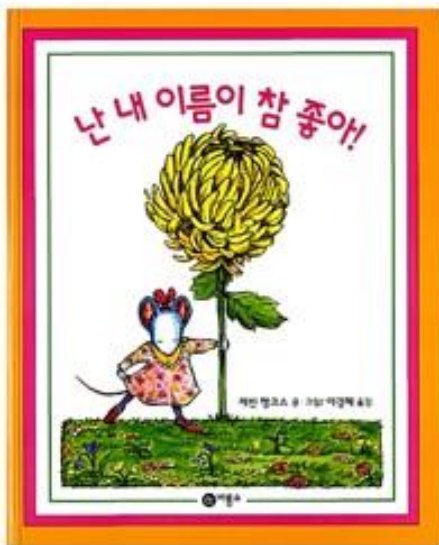
비룡소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 친구, 가족, 우정의 의미



케빈 행크스 그림책이 줄 수 있는 안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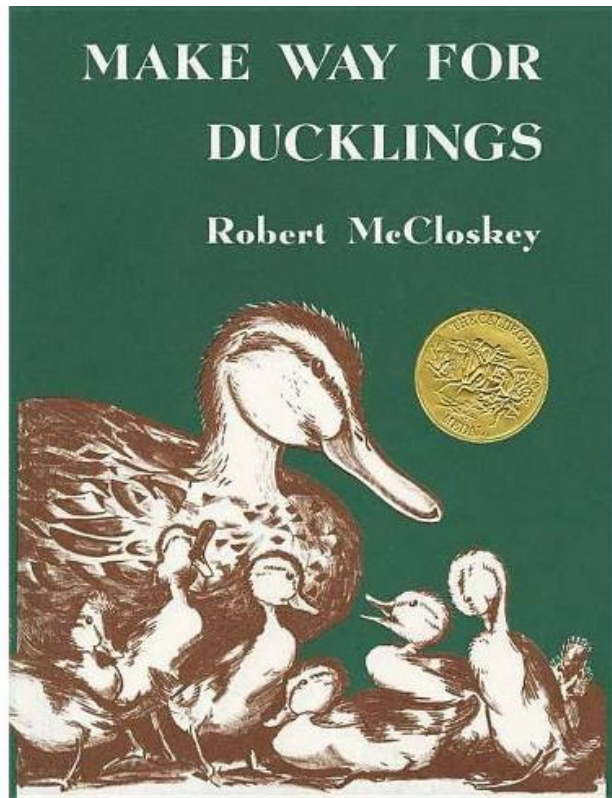




루드비히 베벌먼즈의 그림책 <Madeline's Rescue>은 1940년 명예상 수상작 마들린느와 같은 시리즈이다. 이 그림책은 마들린느라는 모험심 가득하고 전복적인 인물을 통해 어린이의 존재론에 혁신을 가져오고 현대적 어린이 주인공의 모델을 제시한 작품이다. 에펠탑과 센강의 풍경처럼 1900년대 초 중반 가장 화려한 대도시였던 파리의 풍물을 그림책 안에 적극적으로 들여와 마들린느와 친구들이 그 공간 안에서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책이 당대의 현실과 밀착된 이미지를 담아낸 성공적인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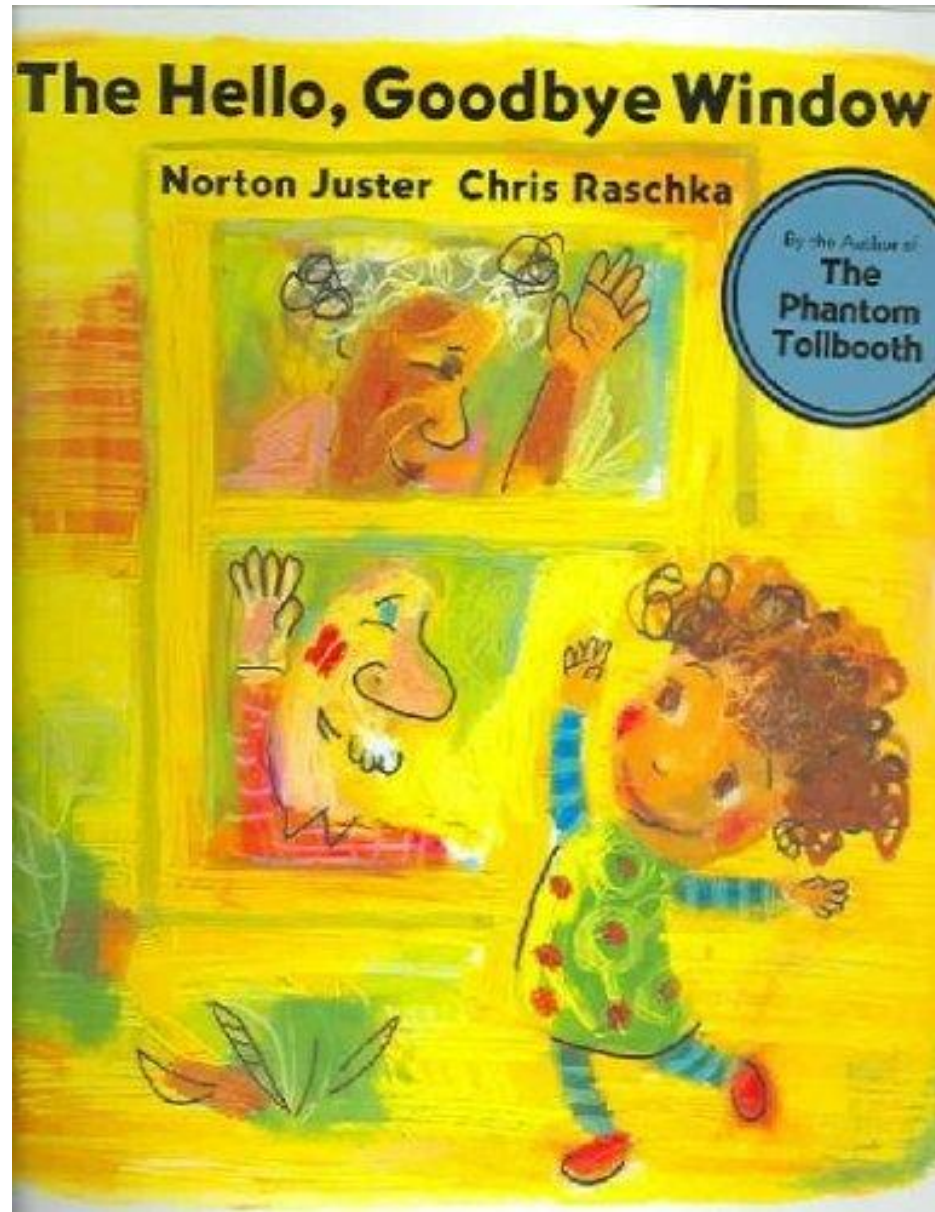
MADELINE
BIRTH. 1939



로버트 맥클로스키의 그림책 <Make Way for Ducklings>(1942년 수상작)은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이 어떻게 교차되고 동행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스턴시의 실제 거리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영화적인 장면 연출이 돋보인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고통 속에 각박한 삶을 이겨내고 있던 독자들에게 그림책이 전하는 위로의 힘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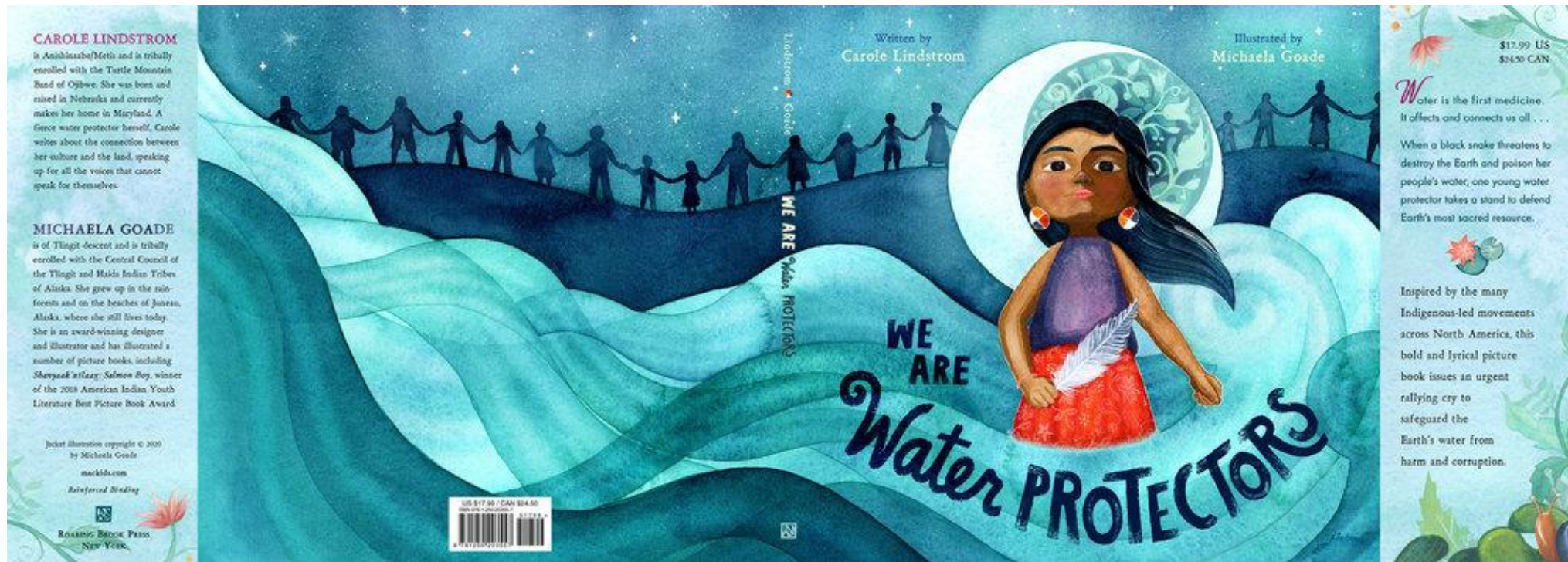


제럴드 맥더머트의 그림책 < Arrow to the Sun>(1975년 수상작)은 뉴멕시코의 푸에블로 설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다. 주황과 노랑을 비롯해 뉴멕시코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온 색의 맥락을 활용하는 방식이 세련되고 절묘하며 칼데콧상 심사평에서 언급된 바처럼 “외피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샤먼”의 모습이 강렬하다. 그림책 중의 많은 작품은 전래된 옛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책 또한 설화의 힘을 현대적으로 재현해낸 걸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노턴 저스터가 글을 쓰고 크리스 라슈카가 그림을 그린 <The Hello, Goodbye Window>(2006년 수상작)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을 방문한 어린이의 설레는 마음을 자유분방한 선과 풍성한 색, 다채로운 레이아웃으로 나타냈다. 권위를 내려놓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조부모와 어린이의 생생한 교감이 다정하게 그려진다.

캐롤 린드스트롬이 글을 쓰고 미카엘라 고드가 그림을 그린 <We Are Water Protectors>(2021년 수상작)는 팬데믹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지구 공동체의 미래와 생태 환경의 보존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긴 작품이다.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에서 실제로 벌어진 송유관 선로 개발계획과 관련된 작품이다. 이 그림책에서 말하는 '검은 뱀'은 송유관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송유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개발과 자연 파괴의 시도는 '검은 뱀'일 수 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한 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인종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투명한 푸른 빛의 수채화로 그려내면서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선언하는 견고한 개성을 지닌 작품이다.





감사합니다 @myaldo